

KOCHAM

Economic Briefing

Korean Chamber of Commerce
and Industry in USA, Inc

2014년 10월 30일(목)

【 미국 경제 동향 】

- 1) 3분기 GDP 호조, 정부지출 확대·에너지 수입 감소
- 2) 대기업 실적전망치 상향

【 해외 경제 동향 】

- 1) 브라질, 기준금리 6개월 만에 인상
- 2) 독일, 실업자 예상하회 (최저실업률 유지)

【 산업·시장 동향 】

- 1) 피아트 크라이슬러, 페라리 분사하기로 결정

【 미국 경제 동향 】

2) 3분기 GDP 호조, 정부지출 확대 · 에너지 수입 감소

- 지난 30일 미상무부는 3분기 중 미국의 GDP 잠정치가 전 분기 대비 3.5% 증가했다고 밝혔
 - 이는 블룸버그가 집계한 시장 전문가 예상치를 0.5%포인트 상회한 수치이며, 또한 지난 11년래 가장 높은 수준의 결과
(미국 GDP는 지난 2003년 3분기 중 6.9%, 4분기 중 4.8% 증가)
- 한편,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4,640억달러에서 4,099억달러로 감소된 것으로 집계
 - 원유 및 소비재 수입이 감소로 나타나진 결과로 GDP성장률 집계에 1.3%포인트 기여

2) 대기업 실적전망치 상향

- 지난 29일 WSJ은 미국 대기업들의 올 3분기 실적전망치가 일제히 상승하고 있다고 보도
 - WSJ는 맥주 캔에서부터 트럭, 난방기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미 대기업들의 3분기 실적이 개선되고 있다고 보도
- 이는 2/4분기에 비하면 성장세가 둔화된 것이지만, 전문가들은 순익증가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
- 반면, 일부 전문가들은 고전이 예상되는 기업들도 있다고 분석
 - 통신기업 AT&T, 제약사인 머크 등은 올해 매출목표를 하향했고 기중기 제조사인 테렉스는 올해 순익전망치를 하향 바 있음

- WSJ는 유럽의 경기침체와 중국시장의 성장둔화가 수출위주 미국 기업들의 향후 실적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

【 해외 경제 동향 】

1) 브라질, 기준금리 6개월 만에 인상

- o 지난 29일 브라질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11.0%에서 11.25%로 0.25%포인트 인상하기로 결정
 - 기준금리 인상은 브라질 대통령이 지난 26일 재선에 성공한 후 첫 결정
- o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이 인플레이션 상승률이 지속된데 따른 것으로 분석, 해알화 급락 역시 원인으로 분석
 - 브라질 중앙은행은 올해 인플레이션율을 6.3%, 내년에는 5.8%, 2016년에는 5%로 예상

2) 독일, 실업자 예상하회 (최저실업률 유지)

- o 지난 30일 연방노동청은 독일의 실업자 수가 이달 들어서 2만2천명 줄어 지난 6개월래 가장 많이 감소했다고 발표
 - 이는 유로존 경기침체와 독일 교역 악화 여파로 실업자 수가 늘 것이라고 본 시장의 예상과는 상이한 결과
- o 독일의 이달 실업자 감소 수치는 과거 서독 지역에서 1만8천명, 동독 지역에서 4천명을 기록, 전체적으로 실업률은 독일 통일 이후 최저 수준인 6.7% 선을 유지

- 하지만, 전문가들은 주요 교역 상대국이 포진한 유로존의 경기침체와 내수 악화 가능성에 맞물려 실업률이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

【 산업·시장 동향 】

1) 피아트 크라이슬러, 페라리 분사하기로 결정

- 지난 29일 피아트 크라이슬러 오토모빌스(FCA)는 자회사인 고급차 제조업체 페라리를 분사하기로 했다고 밝힘
 - 그러나 피아트 크라이슬러는 알파로메오와 마세라티 등 다른 고급차 브랜드는 계속 유지한다는 방침
- 피아트 크라이슬러는 페라리의 분사가 내년 중 마무리될 계획이며, 이번 분사는 사업 성장에 필요한 자본을 조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
- 피아트 크라이슬러는 이탈리아 피아트와 미국 크라이슬러가 합병한 회사로 이달 뉴욕 증시에 상장된 바 있으며, 피아트 크라이슬러의 3/4분기 영업이익은 7% 늘어난 9억2천6백만유로를 기록한 바 있음